

- 주요 뉴스: 미국 뉴욕 연은,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. 투자자들은 5월 0.25%p 인상 예상
 - 세계은행 총재, 금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 상향. 신흥국 부채 문제는 주의할 필요
 -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, 근원 인플레이션 고려 시 ECB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
 - 일본은행 총재, 현행 수익률곡선제어(YCC) 유지가 적절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지난 주 공개된 3월 고용보고서 및 5월 FOMC 전망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0.1%], 달러화 절상[+0.5%], 금리 상승[+3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반도체 관련주 중심의 매수 증가 등이 배경
유로 Stoxx600지수는 부활절 연휴로 휴장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 전망 등이 반영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4%, 1.1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주요 원인
독일은 부활절 연휴로 휴장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18.8원, -0.9원) 0.1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4/10일	4/7일	전일대비			4/10일	4/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109.1	휴장	0.10%	국채 금리 10y	미국	3.42%	3.39%	3bp
	유럽	휴장	휴장	-		독일	휴장	휴장	-
	중국	3,315.4	3,327.6	-0.37%		영국	휴장	휴장	-
	일본	27,634	27,518	0.42%	CDS 5y	한국	46bp	45bp	1bp
	한국	2,512.1	2,490.4	0.87%		중국	75bp	74bp	1bp
환율	달러지수	102.56	102.09	0.46%	위험 지표	EMBI+	-	414	-
	유로화	1.0859	1.0905	-0.42%		VIX	18.97	휴장	3.10%
	엔화	133.61	132.16	-1.09%		WTI유	79.74	휴장	-1.19%
	위안화	6.8847	6.8679	-0.24%	원자재	구리	397.7	휴장	-0.97%
	원화	1,319.7	1,316.7	-0.23%		금	1,991.5	휴장	-0.82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- 미국 뉴욕 연은,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. 투자자들은 5월 0.25%p 인상 예상
 - 뉴욕 연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, 응답자들은 연말까지 물가가 0.50%p(연율 기준 4.7%) 상승할 것으로 예상.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것은 작년 10월 이후 처음. 한편 신용 여건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8.2%를 나타내 '13년 6월 이후 최고치 기록
 - 블룸버그에 따르면, 스왑시장은 5월 FOMC에서 0.25%p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발신. CME의 FedWatch Tool 역시 5월 0.25%p 금리인상 가능성을 69.7%로 제시(동결 가능성은 30.3%)
 - 지난 주 발표된 3월 고용보고서에서 신규 고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5월 금리인상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. 한편 이번 주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(CPI)도 관심사. 헤드라인 CPI 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비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
 - 한편 Adobe에 따르면, 3월 디지털물가지수의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1.7%를 기록하여 7개월 연속 하락. 이는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경쟁 심화 등으로 가격 상승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- 세계은행 총재, 금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 상향. 신흥국 부채 문제는 주의할 필요
 - 금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2.0%로 제시하여 이전(1.7%) 대비 상향 조정하고, 이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에 기인한다고 설명. 한편 여타 선진국들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이전에 비해 소폭 상향. 다만 은행권 불안과 유가 상승 압력은 하반기 성장률 전망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
- 뉴욕 연은 총재, 금리인상과 최근 은행권 불안의 상관관계는 적은 편
 -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의 적극적인 금리인상이 최근 은행권 불안을 부추겼다는 시각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. 한편 이번에 발생한 몇몇 은행의 파산이 과거와 같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. 또한 시장의 예상이 실제 통화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

■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, 근원 인플레이션 고려 시 ECB의 추가 금리인상 예상

- 데코스 총재는 역내 근원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, 이에 ECB가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. 한편 최근 불거진 은행권 위기가 증폭될 경우 금융 및 신용 여건 악화로 물가 하방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

■ 중국의 중소형 은행, 당국의 권고로 예금금리 인하. 수익성 개선 등이 목적

- 일부 중소형 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를 단행. 이번 조치는 당국이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권고한 것으로 보도. 최근 은행들은 정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출 촉진 정책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

■ 일본은행 총재, 현행 수익률곡선제어(YCC) 유지가 적절

- 우에다 총재는 기존의 YCC가 현 경제 상황에서 적합하며, 정부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연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언. 아울러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와의 공동목표를 지금 당장 변경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고 첨언

■ 일본 3월 소비자신뢰지수, 10개월래 최고치.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 증가에 기인

- 3월 소비자신뢰지수는 33.9를 기록하여 전월(31.1) 대비 상승하며 작년 5월 이후 최고치 기록. 코로나 팬데믹 규제 완화 이후 나타난 소득 증가, 고용 개선 등이 이번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

■ IMF,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금리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하락 예상

- 최근의 고금리 상황은 일시적이며, 팬데믹 이후 중립금리 수준이 하락했기에 인플레이션 불안이 해소된다면 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. 이는 국가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중앙은행들은 다시 한 번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4/11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시카고 연은 굴스비 총재 및 필라델피아 연은 하커 총재 강연
- 유로존 3월 소매판매, 중국 3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주요국의 금리인상 사이클, 막바지 국면에 진입. 내년에는 금리인하 전망 - 블룸버그

(End May Be in Sight for Global Rate-Hike Cycle as Fed Nears Peak)

- 주요국 중앙은행은 '23년 초까지 중국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, 유럽의 경기침체 회피, 수요 우위의 미국 노동시장 등으로 금리인상 압력에 직면
-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 금리인상이 정점 수준에 도달했거나 이미 인상을 완료하여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이 점차 증가. 특히 최근 은행권 불안 및 그 동안의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긴축 등이 금리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
- 연준의 경우 5월 0.25%p 인상 이후 연말까지 2번의 0.25%p 금리인하가 예상. 만일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선다면 다른 중앙은행들도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관측

■ 세계경제, 은행 불안에도 강한 복원력을 나타낼 가능성 - Financial Times

(Global economy fends off geopolitical and banking threats)

- IMF 등 주요 기관들은 금년 초 심각한 경기침체 우려를 경고했었는데, 최근에는 작년 10월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세계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.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은행권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징후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
- 미국의 경우 은행권 불안의 영향으로 소비지출 및 고용성장이 주춤할 수 있지만 연착륙이 가능한 상태. 한편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로 5% 성장을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

■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, 균열의 전조가 가시화 - Financial Times

(European commercial real estate: the cracks are starting to show)

-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은 사무실 임차인의 재택근무 증가, 금리인상으로 인한 임대인의 차입비용 상승 등으로 부채 확대 요인이 고조. Citi는 '24년까지 유럽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40%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
- 전문가들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가 단기간에 급격한 형태로 전개되기 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은행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. 특히 지난 금융위기와 달리 유럽은 자금조달 비용이 큰 폭 증가했는데, 이러한 상황은 상업용 부동산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소지

■ **은행권 불안, 신용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 - Financial Times**

(Banking tremors leave a legacy of credit contraction)

- 은행권 불안으로 향후 은행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가능성이 고조.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국은 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해 신중하게 관리 감독할 전망
- 첫째, 만기보유(hold-to-maturity) 증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손실이 부각. 이들 증권의 미실현 손실이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현실화될 경우 은행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상업용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자산도 압박
- 둘째, 은행은 다른 이자지급 상품과의 경쟁 등으로 높은 차입비용과 예금보험료 등을 예금주에게 전가하지 못할 가능성. 이는 향후 몇 분기에 걸쳐 신용 위축으로 이어지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

■ **유럽 은행권, 금년 순이자수입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 - Financial Times**

(European banks: net interest income momentum will fade this yea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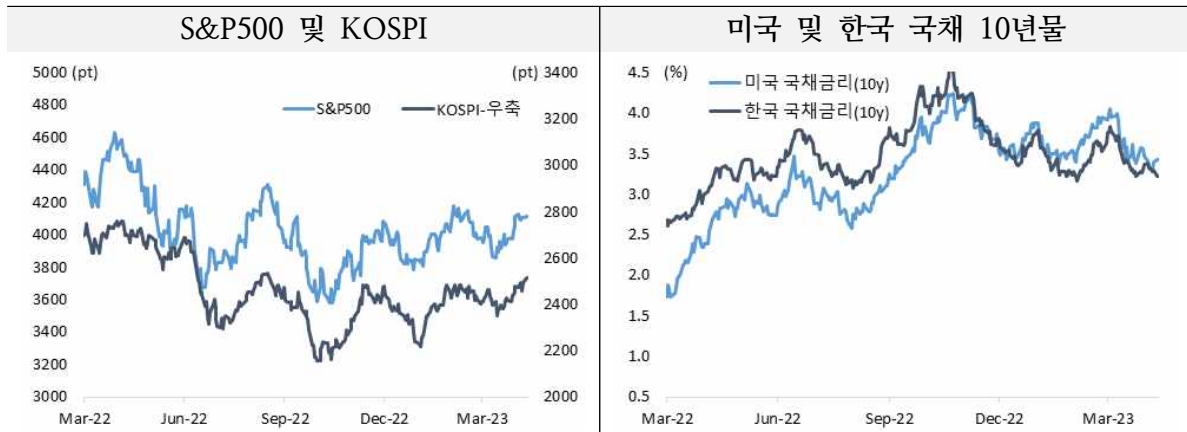
■ **중국 금융기관, 당국의 반부패 강화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 - Financial Times**

(China's financial sector rocked by expansion of anti-corruption drive)

■ **중국의 연구개발 지출 확대, 서방과의 합작투자 필요성 감소 초래 - 블룸버그**

(China May Not Need Western Technology Much Longer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